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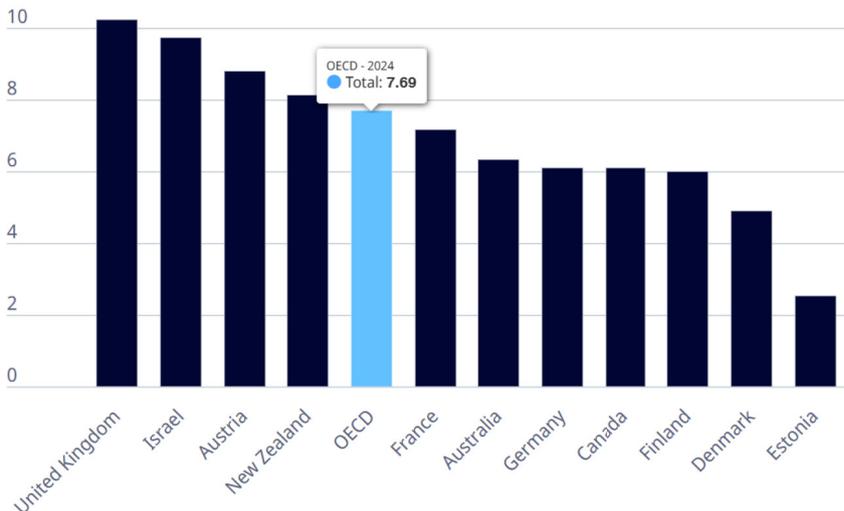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정의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학령기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및 청소년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NEET(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는 OECD와 EU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떤 형태의 고용, 정규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ELET(Early Leaver from Education and Training)'도 있다. ELET는 중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추가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및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출처: OECD, EUROSTAT

학교 밖 청소년 문제와 해결 방안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학습격차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교육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청소년 층의 교육 이탈은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배제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루어진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통합 강화, 상담 및 멘토링 확대, 대안교육 경로 제공 등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재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단순히 이탈을 줄이는 것을 넘어 청소년의 삶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실행되고 있다.



2024년 청소년 (15~19세) 중 'NEET' 청소년의 비율

출처: OECD,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 독일의 학교 밖 청소년 추세와 지원 방향

- 2년마다 발간되는 독일 국가교육보고서(2024년 6월 17일 발표) 따르면, 2022년 6.9%(52,300명)의 청소년이 졸업장 없이 학교를 그만둠.
- **예방 정책:** 의무교육 기간이 있어 학생이 무단결석할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됨(연방 주에 따라 다름)
- **지원 정책:** 학교와 학교 밖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독일의 학업-진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Bildungsketten(교육 연계 사업)



- **목적:** 청소년 교육 기회 증진, 직업 훈련 강화
- **방법:** 연방 교육연구부(BMBWF), 연방 노동사회부(BMAS), 연방 고용청(BA)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조율
- **활동 분야:** 진로지도, 학교생활, 직업 훈련, 대학 진학 과정, 교육과정 개별 지원 등

Jugend Stärken(청소년 강화 사업)



- **목적:** 사회적·민족적 배경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전을 지원하고 자립으로 나아가는 여정 동행
- **방법:** 학교, 직장, 사회 적응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
- **특징:** 집 근처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낮은 문턱의 접근성 보장
- **대표 서비스:** 청소년 이주 서비스, 존중 코치, 청소년 강화: 자립으로 가는 다리



핀란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의무교육 연장, 학교와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원스톱 청년 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내 접촉하는 '능동적 개입' 시스템으로서 개인의 동의 없이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 특징이다.

▶ 2024년도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Outreach Youth Work) 사업 성과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에 참여한 인원

20,659

연령 구성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이 시작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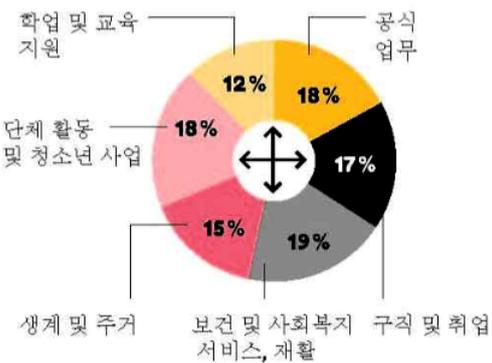
대상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

- 실업 또는 학생(중퇴 위험)
- 부모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여 생활
- 사회적 서비스에서 소외
- 불투명한 미래 전망

청소년과 함께하는 목표



지원 주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전

- 82 % 일상 생활 기술
- 80 % 학습 및 직업 기술
- 79 % 생애 관리



Sources: OKM/AVI: National outreach youth work survey 2024, Into: Outreach youth work Sovari (Social Empowerment Indicator) 2024.



▶ 심화되는 출석 위기와 정책적 과제

Issue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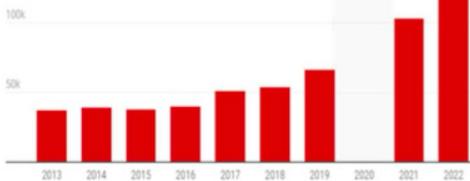
Children Missing Education:
교육에서 이탈한 학령기 아동



Key Statistics

2022/23 교육부 집계 12만 명

Data not collected



Figures to summer 2022. Academic years ending on date shown. From table 10 of Pupil absence in schools in England statistics

Attendance Issues

- 팬데믹
- 특수교육 요구
- 정신건강
- 돌봄청소년
- 정학 및 퇴학
- 홈스쿨링



Intervention Programs



학교 밖 활동 공간
보호 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등록제 시행



특수교육, 정신건강
돌봄청소년 지원강화



프랑스

프랑스는 매년 수만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인 안전망을 마련해왔다. 16~18세까지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의무화하고, MLDS(학교 중도이탈 방지 임무)와 PSAD(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플랫폼) 같은 전국·지역 단위 플랫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추적·지원한다. 또한 두 번째 기회 학교(E2C)와 직업교육·견습 제도를 통해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의 길을 열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관리와 상담·멘토링 등 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조기중단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여전히 지역 격차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대응할까?



제도적 안전망

16~18세 교육·훈련 의무화
국가-지역 연계 플랫폼 (MLDS·PSAD) 운영



지역 기반 지원 및 대안 경로

아카데미·지자체 협력 구조
두 번째 기회 학교(E2C), 직업교육·견습 확대



데이터 활용 및 심리 지원

PSAD 통한 위험군 조기 발견
상담·멘토링·정서 지원 강화

“ 제도·지역·데이터를 결합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지원 ”



미국

▶ 미국 학교 밖 청소년: 커져가는 위기



- **등록 감소**: 더 많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 **정체된 감소 비율**: 안전망이 잡지 못함
- **고용 격차**: 일자리 시장이 흡수하지 못함.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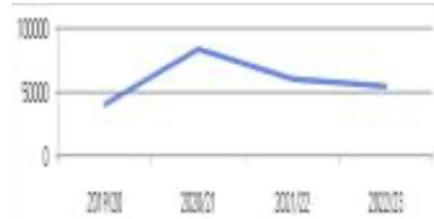


- **워싱턴 오픈 도어스 청소년 재참여 프로그램**
: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개인 맞춤형 학습 결합
- **캘리포니아 계속 교육 고등학교**
: 소규모 학급과 유연한 수업 시간을 제공
- **텍사스 챌린지 아카데미**
: 주 방위군이 운영하는 기숙형 대안 교육 프로그램
- 규율과 리더십을 함양



▶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심화의 배경**

- 팬데믹을 계기로 가정학습·원격수업·대안교육이 확산되며 '학교 밖에서의 학습' 참여가 급증
- 전통적인 공교육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대한 수요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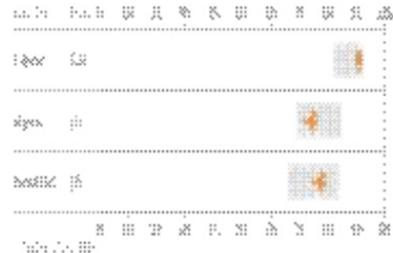


홈스쿨링 학생 추이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격차**

• **집단 간 뚜렷한 격차**

- 전국 고교 중퇴율(학업 중단율) 약 7~13%, 저소득지역은 30~50%
- BC 주 졸업률: 전체 약 90% vs 원주민 75%, 장애학생 78%



BC주 졸업률

• **만성결석 문제**

- PISA 2022: 캐나다 15세 학생 30%가 최근 2주 내 결석 경험 (OECD 평균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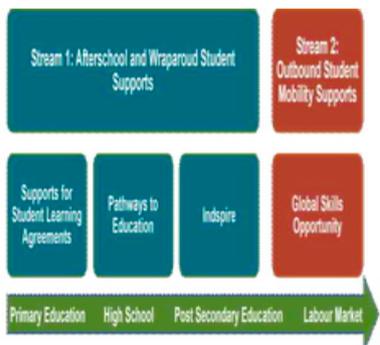
▶ **다층적 지원 구조 및 사례**

• **학업중단 및 위기 학생 지원**

- 1) 주 정부: BC Alternate Education, 알버타 Outreach program, 온타리오 Learning Recovery program 운영
- 2) 연방 정부: SSLP 프로그램을 통한 멘토링·튜터링·방과후 활동 지원
- 3) 지역사회: BGC Canada, United for Literacy, Inspire 등 비영리 단체의 현장 기반 지원

•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세부 사례(온타리오 주 지역 교육청)**

- : Re-Engagement Strategy(재참여 전략), Dual Credit(고교-대학 연계 학점제), PLAR(교외활동 학점 인정제), SWAC(대학 캠퍼스 내 대체 교실 학점제) 등 운영



SSLP



공간여유시)United for Literacy



BGC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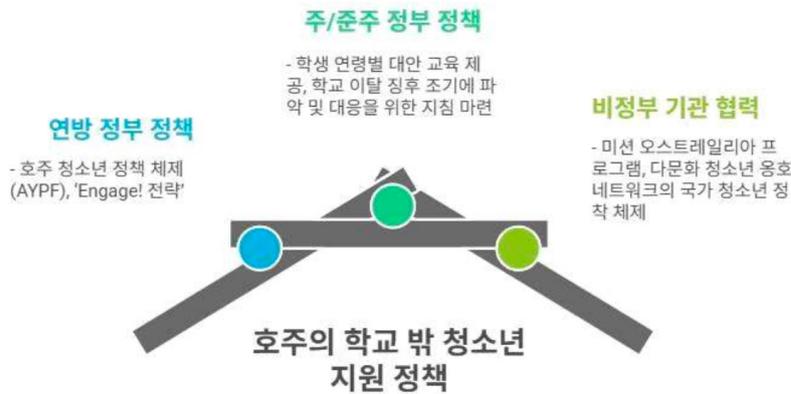


호주와 뉴질랜드

▶ 호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호주는 연방 정부와 주/준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와 비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다층적으로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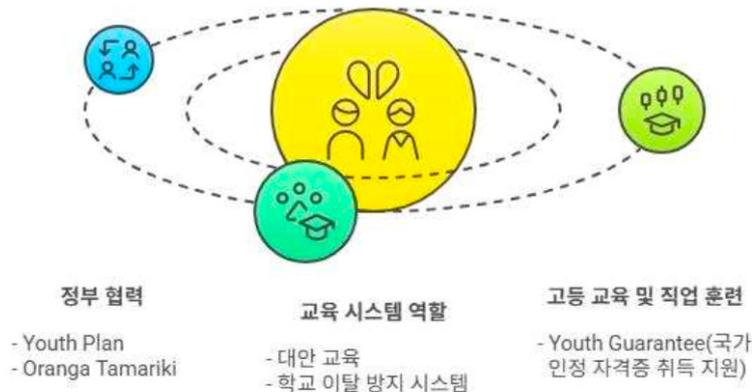
- **연방 정부**: 호주 청소년 정책 체제(AYPF), 'Engage! 전략'
- **주/준주 정부 및 학교**: 학생 연령별 대안 교육(Alternative Settings) 제공, 학교 이탈 징후 조기에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Everybody's Business)
- **비정부 기관(NGO) 및 지역사회**: 미션 오스트레일리아의 상담, 교육 및 고용 훈련 프로그램, 다문화 청소년 옹호 네트워크(MYAN)의 국가 청소년 정착 체제(NYSF)



▶ 뉴질랜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의 문화적 가치인 '마나 타이오히(Mana Taiohi)'에 뿌리를 두고, 마오리족 공동체와 정부 기관, 학교,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정책적으로 지원함

- **정부 부처**: 사회개발부와 교육부의 공동 청소년 계획(Youth Plan), 정부 산하 기관 오랑가타마리키(Oranga Tamariki)의 청소년 문제 조기 식별 및 해결 활동
- **학교**: 13~15세 사이의 학교 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뉴질랜드 고등교육위원회(TEC)**: 청소년 보장 프로그램(Youth Guarantee) 운영





▶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 교육기회확보법

부등교 학생 등 의무 교육 단계의 보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부등교 학생에 대한 정의 또한 교육 기회 확보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로써 부등교 학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대안교육

자유 학교(프리스쿨): 민간 사립 교육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약 474개가 설치되어 있다. 주 5일 운영하지만 학생들이 반드시 매일 등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교육과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부등교 특례교: 부등교 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예술, 음악, 스포츠, IT 기술 등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가상학교 / 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에서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가상학교(バーチャル学校)를 시범적으로 운영함. 이 가상학교는 학교 및 자유 학교 등에 계속적으로 다니지 않거나 질병 등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됨. 학생들은 아바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재로 학습이 가능함. 특히 참가 학생 간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비밀 대화도 가능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기획 및 편집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교육연구사 안주연 및 발간위원 8명

표지 기사

아천초등학교 교사 최희도

주소

054-840-2276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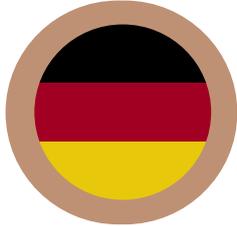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WEB

www.gbe.kr/gber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Out-of-School Youth Support Policy



독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간위원 : 최신영 (영주가흥초등학교 교사)

1. 독일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관련 연구

2024년 6월 17일, 2년마다 발표되는 독일 국가교육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6.9%(52,300명)의 청소년이 졸업장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연방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는 5.2%, 2021년에는 6.2%(47,500명)이었다. 학년 중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중퇴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이 왜 등교를 거부하는지, 정기적인 무단결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Jeder Schultag zählt(=Every School Day Counts)' 연구 프로젝트¹⁾의 책임자인 하인리히 리킹(Heinrich Ricking)은 프로젝트 학교에서 개발한 측정 지표, 등교 거부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석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약 1%의 아동이 질병 이외의 이유로 결석한다. 하지만 8학년(중등학교)이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고 만성적인 결석이 발생하는 비율이 약 4%로 증가한다. 중등학교 결석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많은 학교가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여러 연방 주에서 학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학교 결석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기본 패턴은 다음과 같다.

● **불안**: 두려움이나 위협에 대한 가장 흔한 반응은 회피인데, 결석도 같은 맥락이다. 불안의 원

1) 2019년~2022년 하인리히 리킹의 지도로 함부르크 지역의 네 개 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이다. 초등학교 2곳, 초등학교 및 지역학교 1곳, 지역학교 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은 다양하며, 주로 학교에서 비롯된다.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괴롭힘 등이 그 원인이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분리 불안은 아이들이 아침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 **결점:** 결석은 여러 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종종 영향을 미친다. 학교 문제에 대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부모의 교육적 의지가 낮다. 여기에 속한 아이들은 학교생활 준비가 부족하고, 처음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또한 학업 성취도, 사회적 행동을 비롯한 표준화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패가 잦다.

◎ **부모의 학교 참여 거부:**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보호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방치나 학대와 같은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자녀가 자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정신 질환이 있는 부모나, 공립학교를 거부하고 직접 홈스쿨링을 하려는 부모 등이 해당이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무단결석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7~8학년에 나타나는 결석은 이미 초등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8학년에 무단결석을 하는 많은 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이 학교에 다닌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Jeder Schultag zählt(=Every School Day Counts)’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교 무단결석을 줄이는 것이다. 학교에서 개발한 예방 조치에는 학생 출석 및 결석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무단결석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문성 개발, 학부모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의 협력은 예방의 근본적 요소라고 보고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결석 예방을 위해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훨씬 더 활발해야 한다고 보았고, 모든 학년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 ◎ 학교 풍토와 학교 분위기와 관련된 활동
- ◎ 학교 출석 모니터링
- ◎ 폭력 예방
- ◎ 실패 예방
- ◎상담 강화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은 교실에 물리적으로만 있을 뿐, 더 이상 완전히 참여하지 않기에 학생이 잦은 지각, 무관심한 태도, 수업 방해를 한다면 교사는 이를 결석의 전조이자 중요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학생이 무단결석을 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연락해야 한다. 하인리히 리킹 연구 책임자는 학생이 처음 무단결석을 할 때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내가 학교에 있든 말든 상관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고 밝혔다.

2. 학생의 무단결석과 등교 거부에 대한 학교 대책(예방)

가. 독일의 의무교육 제도

독일에서 1919년부터 시행된 의무교육 제도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은 일정 나이까지 학교에 출석하고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연방 주에 따라 아동은 만 5세에서 만 7세 사이에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의무교육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아동의 법적 보호자는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둘째, 승인된 학교(공립학교나 사립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학생은 규칙적·적극적으로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수업 및 필요한 경우 학교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연방주의 주 헌법에 학교법이 명시되어 있고, 의무교육은 독일 전역에 걸쳐 적용되지 않는다. 처음 의무교육은 독일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적용되었는데, 1960년대부터 외국인 아동에게도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2005년부터 난민 신청 아동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한다.

의무 전일제 교육은 일반적으로 9년~10년 동안 지속된다. 학생이 학년을 유급해야 하는 경우, 전일제 교육은 9학년이나 10학년이 아니라 8학년이나 9학年で 끝난다. 그러나 학생이 이 학년을 건너뛰면 해당 학점이 인정되어 의무교육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의무 전일제 교육이 끝나면 2년~3년 동안 의무 직업 교육이 시작된다. 이 요건은 학생이 직업학교나 1·2차 중등 교육 과정에 진학함으로써 충족된다. 따라서 의무적인 직업학교 수업은 직업 훈련이 끝나거나 12학년을 마치면 끝나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방 주에 따라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14세 이상 학생은 벌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며,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모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 방학 기간 외 시기에 부모가 자녀와 함께 휴가를 갈 경우에도 무단결석으로 간주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 무단결석에 대한 학교 대책 단계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무단결석 시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행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학생의 부정행위를 훈계한다. 사전 통지나 사유 없이 결석한 첫날이 지나면, 교사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결석 사유를 묻는다. 이 전화는 명부에 기록된다. 무단결석이 3회 이상 발생하면(연속적인 결석이 아니더라도) 학생에게 서면으로 독촉장을 발송한다. 담임교사나 학교 행정실에서 두 번째 독촉장을 발송할 수도 있다. 무단결석이 10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학교 행정실은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학생이 무단결석 후 5일 이상 추가로 결석했을 때, 1~2개월 후에 관련 기관에 추가 보고를 할 수 있다. 학교가 무단결석이 10회 이상 발생했음을 교무실에

신고하는 즉시, 교무실은 벌금 부과 절차를 밟지만, 학교는 이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교무실은 학부모와 무단결석 학생에게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다. 이 절차도 연방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작센주에서는 무단결석이 5회만 발생해도 치안 담당 부서에 연락하지만, 튀링겐주에서는 11일이 지나야 치안 담당 부서에 연락한다. 무단결석 학생이 심리에 참석하지 않거나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결석에 대한 첫 번째 벌금을 부과받는다. 벌금 통지서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을 작업 지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 법원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 학생은 결석에 대한 벌금을 보상하기 위해 요양원이나 노숙자 보호소 등에서 사회봉사를 완료해야 하며, 지방 법원은 결석 시간당 5유로를 부과한다. 즉, 100유로의 벌금을 벌기 위해 학생은 20시간의 사회봉사를 완료해야 한다. 무단결석 학생이 조치를 무시할 경우, 1차 여가 활동 또는 주말 구금 처분을 받게 된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학생을 소환할 수 있다. 누적된 벌금이 더 높을 경우, 청소년 구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표 1> 연방 주별 의무교육 기간과 의무교육 위반에 따른 벌금

연방 주	의무교육 기간 (의무 전일제 교육)	의무교육 기간 (의무 직업학교 출석)	의무교육 위반에 따른 벌금
함부르크	9년	2년 또는 학생이 18세가 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결석 1일당 150유로, 재발 시 1일당 200유로
베를린		10년	최대 2,500유로
바덴-뷔르템베르크	10년	학생이 18세가 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결석 1일당 50~300유로
브레멘	10년	2년	결석 1일당 35유로
자를란트	9년	3년	최대 500유로
니더작센	9년	직업 훈련기간 동안	최대 1,000유로
작센	9년	3년	총 1,250유로
바이에른	9년	3년	최대 1,000유로
헤센	10년 또는 9년 의무 전일제 +1년 의무 직업학교 교육		결석 1일당 100유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0년	직업 훈련 계약 기간 또는 학생이 18세가 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결석 1일당 80~150유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9년	학생이 18세가 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벌금 목록에서 확인 불가능
작센-안할트	9년	최소 1년	총 1,000유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9년	학생이 18세가 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벌금 목록에서 확인 불가능
라인란트-팔츠		12년	일회성: 처벌 없음, 재발 시 최대 500유로
브란덴부르크	10년	학생이 18세가 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벌금 목록에서 확인 불가능
튀링겐	9년	직업 훈련 계약 기간 또는 학생이 18세가 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총 1,500유로

※일부 연방 주는 벌금 목록에서 확인 불가능, 별도 확인 필요함

3. 학업-진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가. Bildungsketten(Education Chains Initiative, 교육 연계 사업)

교육 연계 사업은 2010년 연방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가 청소년 교육 기회를 증진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 교육 연계 사업을 위해 연방 교육연구부(BMBF)와 연방 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 연방 고용청(Bundesamt für Arbeit, BA)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조율한다. 이 기관들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동행하고 지원할 책임을 맡고 있다. 주요 활동 분야로는 진로지도, 학교 생활, 직업 훈련 또는 대학 진학 과정, 교육과정 개별 지원 등이 있다.

청소년들은 가능한 한 일찍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파악해야 한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진로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빠르면 7학년부터 시작된다. 2025년 Bildungsketten이 주최한 포럼에서 논의한 현재 대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1: 전환 가이드

일반 교육에서 직업 교육으로 전환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대상 집단은 학교 졸업 증명서가 없고, 기본 또는 고급 직업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임.

◆ 프로젝트 2: 츠바이펠로스(Zweifellos)

대학을 중퇴했거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문화를 구축하는데 목적.

◆ 프로젝트 3: BOaktiv

학교 유형이나 학교 변화와 관계없이 학생들의 개인적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강화하고, 교육과정이나 취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돕는 것. 2025/2026학년도부터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일반 중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됨.

또한 하위 프로그램 중에는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이민자 직업 교육 프로그램(BOF)도 있다.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 독일어 능력 향상, 사회성과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1] Bildungsketten 개최 포럼



[그림 2] 이민자 직업 교육 프로그램

나. Jugend Stärken(Strengthening Youth Initiative, 청소년 강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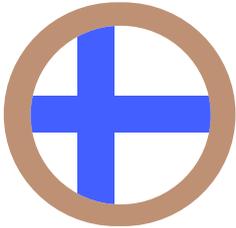
연방청소년가족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청소년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직장, 사회 적응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합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사회적 또는 민족적 배경과 관계없이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전을 지원하고 자립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다. 인구 통계학적 추세, 숙련된 인력 부족 심화, 사회 양극화 심화 속에서 이 과제는 개방적·민주적 사회를 위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 청소년 강화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이주 서비스, 존중 코치, 청소년 강화: 자립으로 가는 다리’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집 근처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서비스는 각 지역사회 체계에 통합되어 있어 각 청소년이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 사회복지 사업, 그룹 프로그램, 사전 조건 없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낮은 문턱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4. 맺음말

독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는 학생의 무단결석과 등교 거부에 대한 예방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의무교육 기간에 학생의 이탈이 없도록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학교와 각 기관이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 ▶ Dialogforum zu aktuellen Themen der Initiative Bildungsketten, 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die-initiative/doku_dialogforum_06_2025.html
- ▶ Initiative JUGEND STÄRKEN, <https://www.jugend-staerken.de/just/programme/initiative-jugend-staerken-139728>
- ▶ Mehr Schulabbrecher und Fachkräftemangel, <https://deutsches-schulportal.de/schule-im-umfeld/nationaler-bildungsbericht-mehr-schulabbrecher-und-fachkraeftemangel/#:~:text=2022%20verlie%C3%9Fen%2052.300%20Jugendliche%20die,zufolge%20bei%205%2C9%20Prozent>
- ▶ Sanktionen im Schulrecht: Droht beim Schuleschwänzen und bei Schulverweigerung ein Bußgeld?, <https://www.bussgeld-info.de/schulverweigerung-bussgeld/>
- ▶ Schulversagen ist der größte Risikofaktor für Schulabsentismus, <https://deutsches-schulportal.de/schulkultur/heinrich-ricking-projekt-hamburg-jeder-schultag-zahlt-schulabsentismus-schwaenzen/>
- ▶ Schulverweigerer und erwachsene Frauen mit Migrationshintergrund für Ausbildung gewinnen, <https://www.bildungsketten.de/bildungsketten/de/themen/integration-in-ausbildung-und-beruf/schulverweigerer-frauen-in-ausbildung-durch-BOF.html>



핀란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간위원 : 최희도 (아천초등학교 교사)

최근 많은 교육 선진국들은 과거의 엘리트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얻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회나 모든 학생이 정규 교육 과정을 온전히 이수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습권과 성장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단순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핀란드 역시 일정 비율의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학업 단절, 취업의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에 마주하고 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핀란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 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핀란드의 학교 밖 청소년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젊은 층을 의미하며, ‘조기 학업 중단 (ELET)’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²⁾ 핀란드 정부는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을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청소년’과 ‘기본교육 후 취업이나 학업을 하지 않는 청년(NEET)’³⁾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핀란드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주로 NEET 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15~24세 청년 중 약 7%에서 10%에 해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취업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비율은 유럽 연합 평균(2024년 기준, 9.3%)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ELET(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란 만 18~24세 청년 가운데 중등교육(고등학교나 직업학교)을 마치지 못하고,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3)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란 교육, 훈련, 또는 고용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인구를 의미하는데, EU(15-29세)와는 달리 핀란드는 해당 연령층을 15세에서 24세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1] 핀란드의 18-24세 연령에서 '조기 학업 중단(ELET)' 그룹 비율 변화⁴⁾

그렇다면 핀란드의 청소년들은 왜 학교를 떠나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업 부진과 학교 적응의 어려움이다. 학생들은 진학 및 진로 과정에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퇴를 선택하거나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둘째, 학생의 정서적 문제다. 특히 학생의 정서적 원인은 최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정서적 탈진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보인다. 실제로 핀란드 보건복지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7세에서 22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 약 175,000명에게 정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3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4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⁵⁾ 셋째, 가정환경 등 개인적 환경의 불안정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정 해체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방임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과 함께 주목할 점은 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즉 학업, 정서적 문제, 가정 환경 등 여러 어려움이 서로 영향을 주며 중첩될 때 학생들이 학교를 떠날 위험은 더욱 커진다.

2. 핀란드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학업을 지속하는 또래들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사회 및 개인적 어려움을 겪는다. 먼저 사회적 고립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으로서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이탈함으로써 또래 집단과의 유대가 약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소속감의 결여와 고립을 겪게 된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청소년기의 발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결핍이나 낮은 자기 존중감으로 이어져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정신 건강의 취약성이다.

4) 데이터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finland/early-leavers-from-education-training-age-group-18-24-eurostat-data.html>

5) <https://yle.fi/a/74-20151950>

앞서 언급한 대로 정서적 문제는 학교 이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교를 떠난 이후 더욱 심화되어 이탈의 결과로도 이어진다. 고립된 생활에서는 우울감, 불안, 무기력 등 정서적 어려움이 커지기 쉽고, 주변의 관심이나 지원의 부족은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은둔하거나 약물 남용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진로 및 취업의 어려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고용자의 입장에서 취업을 원하는 개인의 고등학교 졸업 여부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25-35세)의 실업률은 2019년 17%에서 2024년 2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OECD 평균인 13%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⁶⁾ 학력의 부족이 청소년 및 청년의 진로와 취업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은 또래에 비해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만약 직업을 얻더라도 낮은 임금이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머물기 쉽다. 그 결과 경제적 빈곤이 따라오게 되고, 이는 다시 개인의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소외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이들은 학교나 공식 기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나 약물 문제에 빠지더라도 조기 개입이 늦어질 수 있다. 특히 약물 문제는 최근 핀란드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삶의 어려움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렇듯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악화,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 비행 노출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며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단편적인 도움 보다는 한 개인에게 이뤄질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핀란드의 노력

가. 의무교육 기간 연장

핀란드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무교육 연장이었다. 핀란드는 2021년부터 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8세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은 기본교육⁷⁾ 졸업 후 고등학교나 직업학교 등 상급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종합학교 졸업 후 진로를 못 정한 청소년이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졸업 후 학습 자리 또는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맞춰 상급 중등교육 무상화도 함께 도입되어 학생들이 고등학교나 직업교육 단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을 막고자 하였다.

6) <https://gpseducation.oecd.org/CountryProfile?primaryCountry=FIN&treshold=5&topic=EO>

7)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며 9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나. 학교와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 주체들의 책무성 강화는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과 연계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된 핀란드의 「의무교육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청은 고등학교와 직업학교 단계에서 학생이 학업을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학교와 같은 교육 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학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 제공자는 학생의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핀란드 교육 당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교가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지원 절차를 반드시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학생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이를 해당 지자체와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부모의 책무 역시 강화되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의무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이를 개선할 책임이 있으며 보호자의 과실로 인해 적절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벌금과 같은 법적 제재도 가능하게 되었다. 핀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주체의 책무성 강화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핀란드 사회가 청소년의 학업 이탈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지자체의 노력: 원스톱 청년 지원 센터(Ohjaamo)

지자체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핀란드의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스톱 청년 지원 센터(Ohjaamo)’이다. ‘Ohjaamo’는 2014년 청소년 및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청년 지원 플랫폼으로, 현재 핀란드 전역에 약 70여 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진로 상담, 직업 소개, 학업 연계, 주거 및 복지 상담 등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고나 받을 때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Ohjaamo’의 운영 프로그램 전체가 ‘낮은 문턱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핀란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들이 사회로 원활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헬싱키 시 ‘Ohjaamo’ 모습⁸⁾

라. 청년 워크숍 제도

핀란드의 청년 워크숍 제도는 핀란드의 청년 안전망 정책의 핵심 제도로 모든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교육, 직업 훈련, 재활 프로그램 등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워크숍은 만 29세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업, 훈련, 노동시장 진입, 생활 관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은 워크숍에 직접 연락하거나 자신의 지역 'Ohjaamo' 상담창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워크숍은 '배우며 실천하는 학습' 원리에 기반해 지도와 실제 작업을 결합하여 청소년이 사회 및 직업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이곳은 단순한 직업훈련장이 아니라 공동체적 학습 환경으로 설계되어 또래와 함께하며 사회성 회복과 자기효능감 증진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청년 워크숍은 핀란드 지자체의 약 90%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청년 워크숍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행정청은 워크숍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능동적 개입: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Outreach youth work)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 사업은 앞서 살펴본 Ohjaamo와 청년 워크숍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자가 청소년이 찾아오는 '수동적 거점'이라면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내고 접촉하는 '능동적 개입'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 사업의 핵심은 정보 연계와 개인의 동의 없이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학업 조기 이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핀란드 「청년법」에 따라 학교, 경찰, 사회복지 기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의 정보를 청년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지방정부의 '찾아가는 청소년 활동가'에게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과 연결된 활동가들은 필요에 따라 다른 센터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란드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을 받은 청소년 및 청년은 20,659명이나 되었다. 이는 제도가 실제로 상당수의 청소년을 찾아내고 사회적 안전망으로 연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Age distribution



Typical life situation

- unemployed or student (at drop-out risk)
- living off on parents or social security
- outside the services
- unclear future prospects

[그림 3]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의 연령별 구성과 학생들의 일반적 문제 상황

8) 이미지 출처: <https://nuorten.hel.fi/en/studies-and-work/ohjaamo-helsinki/>

4. 맺음말

핀란드의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학업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의무교육 연장, 학교와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원스톱 청년 지원센터 운영은 모든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배움과 진로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핀란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찾아가는 청소년 지원을 통해 학업과 고용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다시 사회로 연결하기 위한 능동적 개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청소년의 학업, 정서, 가정, 사회적 어려움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복합적 문제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이러한 시각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처방이 아니라 교육, 복지, 지역사회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노력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은 결국 미래 세대와 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일깨우고 있다. 한 명의 청소년도 포기하지 않기 위한 핀란드의 원칙은 우리 사회와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 ▶ EU Youth wiki, Preventing early leaving from education and training (ELET)
<https://national-policies.eacea.ec.europa.eu/youthwiki/chapters/finland/63-preventing-early-leaving-from-education-and-training-elet>
- ▶ Tilastokeskus, More labour force, i.e. employed and unemployed in 2023, than in the previous year
<https://stat.fi/julkaisu/cln01x1oukcgd0cutlb21ovup>
- ▶ Trading Economics, Finland - Early leavers from education and training, age group 18-24
<https://tradingeconomics.com/finland/early-leavers-from-education-training-age-group-18-24-eurostat-data.html>
- ▶ CEDEFOP, Finland: extension of compulsory education comes into effect
<https://www.cedefop.europa.eu/en/news/finland-extension-compulsory-education-comes-effect>
- ▶ Yle, Parents of school dropouts could face fines
<https://yle.fi/a/3-11989025>
- ▶ OHJAAMO, What is a One-Stop Guidance Center?
<https://ohjaamot.fi/en/mika-on-ohjaamo>
-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Youth workshops and outreach youth work
<https://okm.fi/en/workshop-activities-and-outreach-youth-work>
- ▶ intory(2024), Outreach youth work 2024
<https://www.intory.fi/briefly-in-english/>



영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간위원 : 정기엽 (청송중학교부동분교장 교사)

영국의 학교 밖 청소년: 심화되는 출석 위기와 정책적 과제



Ghost children: the pupils who never came back after lockdown

(출처: The Spectator)

1. 들어가며: 고스트 칠드런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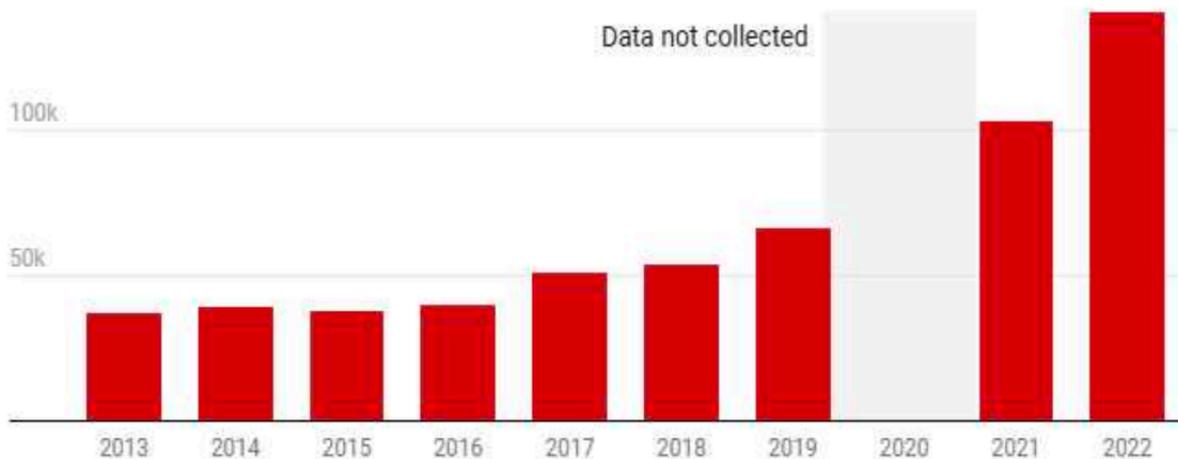
영국의 의무교육 제도는 오랫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해 왔다.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 모든 아동은 전일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 18세까지는 교육·훈련·고용 중 하나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학업 성취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 평생 기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영국 사회에서 가장 큰 교육 정책 논의 중 하

나로 부상한 것은 바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는 전례 없는 장기 휴교와 원격수업을 경험했고, 이는 많은 아동에게 학교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다. 일부 아동은 학습 습관을 잃었고, 다른 일부는 정신적·정서적 문제로 교실을 떠났다. 팬데믹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었음에도 상당수 아동이 교실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과 정책 보고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고스트 칠드런(Ghost Children)”이라 명명했다. BBC, Guardian, Sky News 등 주요 매체는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학령기 아동의 대규모 교육 이탈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2024년 2월, 영국 교육부(DfE)와 아동권익위원회(CCO)가 공동 발표한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2/23 학년도 동안 12만 명의 아동이 교육에서 완전히 이탈(Children Missing Education, CME)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94,900명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 중 39%가 한 학기(12주) 이상 학교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16%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방정부조차 결석 기간을 알지 못했다. 이는 아동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아동권익위원회는 이를 “스캔들 수준의 수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독립 연구기관 EPI(Education Policy Institute)는 GP⁹⁾ 등록과 학교 등록을 비교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2023년 기준 최대 40만 명의 아동이 학교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그중 약 30만 5천 명은 교육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추산한다. 이는 교육부 공식 수치의 2.5배에 달한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일부 취약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교육체계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다.



Figures to summer 2022. Academic years ending on date shown. From table 10 of Pupil absence in schools in England statistics

심각한 결석(severely absent) 수준의 아동 수 집계 (출처: The Spectator)

9) GP: General Practitioner, 지역 가정의 등록 데이터

2. 본론

가.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

영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크게 합법적 범주와 문제적 범주로 구분된다.

합법적 범주에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가정교육(Elective Home Education, EHE)이 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교육 방식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따를 의무도 없다. 질병이나 가족 사정 등 학교가 승인한 결석 역시 문제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문제적 범주는 •수업일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지속적 결석(Persistent Absence), •수업일의 절반 이상을 결석하는 심각 결석(Severe Absence), •어느 학교에도 등록되지 않고 홈스쿨링조차 받지 않는 CME(Children Missing Education), •배치 지연과 지원 부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SEND(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아동, •정학·퇴학 이후 대안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한 아동 등이 포함된다.

팬데믹 이전인 2018/19 학년도에 지속적 결석률은 약 11%였으나, 2021/22에는 27%로 급등했다. 이후에도 개선은 더더 2022/23에는 21%, 2023/24에도 20% 수준에 머물렀다. 심각 결석 아동은 팬데믹 전 0.8%에서 2023/24에는 2.3%(17만 명)에 달했다. 국제통계(UNESCO)는 영국의 학교 밖 아동이 최근 약 18만~20만 명 수준임을 보여주며, 특히 고등학교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나. 주요 원인

1) 팬데믹의 충격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가 닫히면서 아동은 학교를 선택 사항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일부는 복귀하지 않았다. 아동권익위원회 조사에서는 학기 초 며칠간 결석한 아동이 이후 한 학기 동안 평균 45%를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2) SEND 아동 지원 부족

BBC(2024)는 CME 아동 중 22%가 SEND¹⁰⁾ 아동이라고 보도했다. 교육·건강·돌봄 지원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P) 확보 지연, 배치 부족, 예산 한계가 주요 원인이다. 옴부즈맨 접수 사건의 25%가 SEND 관련 사안이며, 부모가 EHCP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3) 정신건강과 학교 불안

팬데믹은 아동 정신건강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불안, 우울, 정서 기반 등교 거부(Emotionally Based School Avoidance)는 급증했고, 특히 여학생과 신경다양성 아동¹¹⁾이 더 취약했다. 괴롭힘, 교사와의 갈등, 학습장애가 배경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다.

10) SEND: 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특수교육 필요 아동

11) 자폐 스펙트럼(AS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난독증(Dyslexia), 난산증(Dyscalculia), 틱장애, 뇌전증 관련 특성 등을 지닌 아동

4) 돌봄청소년(Young Carers)

Carers Trust(2024)에 따르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이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정신건강 문제, 또는 알코올·약물 문제 때문에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돌봄청소년은 연평균 23일의 수업을 빠지며, 절반 가까이가 지속적 결석자였다. 그러나 교사의 4분의 1은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5) 정학·퇴학

2023/24 봄 학기 정학 건수는 29만 5천 건, 퇴학은 3,100건이었다. 정학의 절반 이상, 퇴학의 38%가 '지속적 방해행동' 때문이었다. 정학·퇴학은 곧 CME로 이어질 위험 요인이다.

6) 홈스쿨링과 가상학교

2022/23 학년도 홈에듀케이션 아동은 12만 6천 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문제는 상당수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last resort)'으로 홈스쿨링을 택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부모가 처음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택하는 경우 지방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적절한 교육(suitable education)'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방정부는 홈에듀케이션의 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권한이 없어 상당수 아동이 제도권 밖으로 사라진다. SEND 아동과 빈곤 계층 아동이 여기에 집중되며, 82%는 이미 출석 불량 이력이 있었다.

다. 제도적 기반과 정책 대응

스포츠 클럽, 종교기관, 사설학원 등 학교 밖 활동 공간(Out-of-School Settings, OOSS)은 아동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법적 규제가 없어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교육부는 일부 아동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와 안전하지 않은 시설에서 "즉각적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Sport England는 이에 대응해 1,500만 파운드를 투입해 전국에 보호 담당관 네트워크를 배치했고, NSPCC¹²⁾는 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은 「Education Act 1996」 및 최신 「School Attendance (Pupil Registration) Regulations 2024」 등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CME 아동을 식별·관리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2024년 기준 각종 정책 지침과 세부 절차가 한층 강화되어, 학교와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실시간 출석 데이터를 공유·추적하며, 장기 결석이나 미복귀 발생 시 빠른 개입과 다중기관 협력(보호·복지·경찰 등) 체계를 갖추고 있다.

퇴학·정학 아동에게는 법적으로 6일 차부터 전일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무단결석 10회 이상 시 £80~£160의 과태료, 반복 시 최대 £2,500 및 징역형이 부과된다. 처음에는 학교가 가정과 직접 소통(연락, 가정방문 등)에 나서며, 위험이 크고 장기 미복귀가 우려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CME 담당자에게 통보한 뒤, 모든 관련 기관이 개입할 책임이 있다.

12)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영국 아동학대방지협회

각 지역 ‘학교 밖 아동 정책(Children Missing Education Policy)’에는 아동 실종 신고와 복귀 절차, 사전 보호대책, 실시간 케이스 관리, 지역 아동위원회·의료·복지·경찰 협력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다수 지역에선 데이터 기반 출석관리, 연계 업무지침(툴킷)과 가이드라인 배포, 실질적 ‘사례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다.

라. 학교 현장 대응 사례

■ 리버풀 St Margaret’s Academy

팬데믹 이후 출석률이 급감한 이 학교는 가정-학교 연결 담당관(family liaison officer)을 배치해 부모와 직접 접촉했다. 담당관은 가정을 방문해 학생이 학교를 떠난 이유를 파악하고, 출석 루틴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단순히 습관을 잃은 아동은 출석을 되찾았고, 가정 문제나 불안이 있는 아동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귀를 도왔다.

■ Wirral의 The Hive Youth Zone

이 청소년센터는 학교와 협력해 장기 결석 학생에게 소규모 학습과 멘토링을 제공했다. GCSE¹³⁾ 시험을 포기했던 학생이 다시 수학·영어 과목을 준비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학교 복귀의 발판이 되었다.

■ 브라이턴 Varndean School

이 학교는 SEND 학생 비율이 30%에 달했다. EHCP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교사들은 창의적 방식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학부모와의 협력을 강화해 계획 밖 SEND 학생도 함께 지원했다. 이는 지역 학교가 제약 속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 Huddersfield Town Football Club Academy

학업과 스포츠를 병행하는 선수 지망생의 복지를 위해 세이프가드 소프트웨어 ‘아동보호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Child Protection Online Monitoring System)’을 도입했다. 아동의 복지와 사건 정보를 기록·공유하며, 훈련·경기·학업에 걸쳐 일관된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교 밖 활동 공간(OOSS) 영역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사우스이스트 잉글랜드 중학교

이 학교는 Year 7 학생들의 출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화된 대화(Structured Conversations)를 학부모와 정례화했다. 부모와 교사가 정기적으로 대화하면서 출석률은 절반 가까이 개선되었고, 학부모는 교육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13)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영국 중등교육 일반자격시험

3. 맺음말

영국의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단순한 출석 관리가 아니라 교육권·복지·정신건강·아동 보호가 결합된 종합 과제다.

첫째, 모든 아동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등록제가 시급하다.

둘째, SEND 아동 지원 강화와 EHCP 절차 개선,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학기 초 조기 개입이 장기 결석 예방에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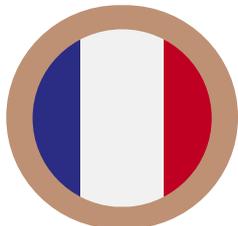
넷째, 돌봄청소년과 같은 숨겨진 취약 집단을 제도적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 밖 활동 공간(OOSS)의 보호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관리에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능한 많은 아동을 학교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지역 청소년센터,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활동 공간(OOSS) 등을 활용한 학교 밖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는다. 영국의 경험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교육에서 이탈한 아동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면 학업 결손을 넘어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되므로, 조기 개입·SEND 지원·정신건강 서비스·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가 반드시 정책적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참고 자료】

- ▶ BBC (2024). Children Missing Education and SEND.
- ▶ Carers Trust (2024). Young Carers and School Absence: Annual Report.
- ▶ Children’s Commissioner’s Office (2024). Children Missing Education – The Unrolled Story.
-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24). School Attendance (Pupil Registration) Regulations 2024.
-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24). Children Missing Education, Academic Year 2023/24.
- ▶ Department for Education (DfE) (2024). Elective Home Education, Academic Year 2023/24.
- ▶ Education Endowment Foundation (2024). Improv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Primary Schools.
- ▶ Education Policy Institute (EPI) (2024). Crenna-Jennings, W., Joseph, A., & Hutchinson, J. Children Missing from Education: Estimates, Trends and Characteristics.
- ▶ Guardian (2024). Weale, S. “It’s about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pupils’: the school attendance crisis and solutions.”
- ▶ NSPCC (2023). Safeguarding Children in Out-of-School Settings.
- ▶ Sport England (2023). Safeguarding in Out-of-School Settings: National Programme Report.



프랑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간위원 : 박다형 (포항이동고등학교 교사)

오늘날 유럽 사회에서 청소년의 학업 중단 문제는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역시 예외가 아니며, 매년 일정 수의 학생들이 중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난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를 décrochage scolaire(학교 중도이탈)로 정의하고, 18~24세 청년 중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며 중학교 졸업 수준 이상의 학력도 갖추지 못한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들은 장기 실업, 불안정 노동, 사회적 고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

유럽연합(Eurostat)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기중단율은 2010년 11.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7.6%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이 설정한 2030년 목표치(9% 미만)를 이미 충족한 결과이지만, 매년 약 11만 명 이상의 청년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왔다.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 모든 청년에게 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지역 단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추적하고 지원하는 전담 플랫폼(PSAD)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보건·사회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조기 이탈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 경로나 직업 연계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구조와 실행 사례를 분석하고, 그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 후, 한국의 지원 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프랑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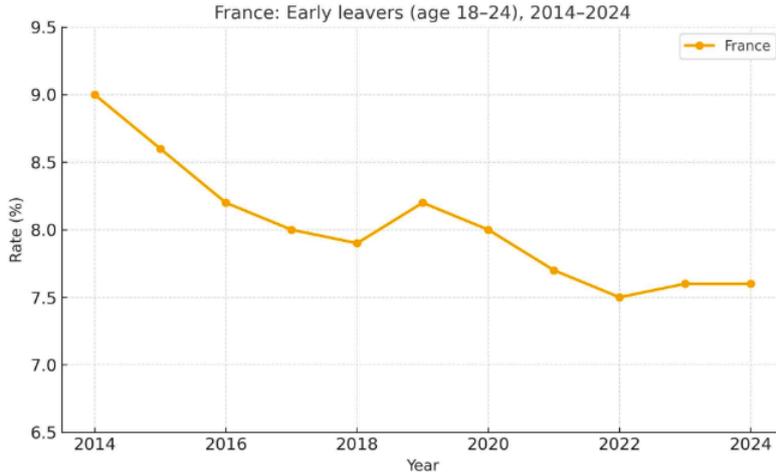
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프랑스 교육부는 Mission de 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 (MLDS, 학교 중단 방지 임무)를 중심으로 전국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MLDS는 이탈 위험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여 학업 복귀나 직업훈련 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단위 조직이 Plateformes de suivi et d'appui aux décrocheurs (PSAD,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플랫폼)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추적하고 연계하는 핵심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2020년부터는 obligation de formation des 16-18 ans 제도가 시행되어, 모든 청년이 16세 이후에도 반드시 교육·직업훈련·시민교육 중 하나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불참 시 지역 당국과 사회복지 기관의 개입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청소년이 일정 기간 사회·교육 체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프랑스는 법적 의무를 통해 청소년의 교육·훈련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만, 한국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유럽 차원 지표와 성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조기중단율(early leavers from education and training)'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점검한다. 2023년 프랑스의 수치는 7.6%로, EU 평균 약 9.5%보다 낮아 장기적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여, 2023년 기준 남성이 8.5%로 여성(6.7%)보다 높게 나타났고, 2022년에는 각각 9.2%와 6.0%를 기록하며 격차가 더욱 확대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 해외 영토(ultra-périphériques)의 조기중단율은 본토의 약 두 배인 13.2%에 달하는데, 이는 지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 인프라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이민자 출신 청소년 역시 본토 출신보다 높은 중단율을 보이며, 사회적 배경이 학업 지속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교육 및 훈련 조기 중단율(18~24세 인구 비율), 2014~2024년¹⁴⁾

2. 실행 사례와 지역별 특징

가. Pays de la Loire 지역의 사례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19년 기준 Pays de la Loire 지역의 조기중단율을 5.9%로 집계하였다. 이는 전국 메트로폴리탄 평균인 6.7%보다 낮은 수치이며, 약 29,000명의 청년(14~24세)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Saumur Val de Loire 권역에서 학업 조기중단율이 10.5%를 넘어서는 등 지역 내 격차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전국 평균만으로는 조기중단 문제의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지역별 사회·경제적 환경과 학교 접근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Pays de la Loire에서 가족 배경이나 도농 간 이동(예컨대, 시골 출신 학생들의 도시 전입 등)이 중단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 아카데미 단위의 대응

최근 아카데미(교육구)별 공개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리옹 아카데미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약 5,725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였다. 프랑스 각 아카데미는 교육청 단위에서 행정적 책임을 맡아 학교, 지자체,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수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개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노동시장, 교통, 복지 인프라와 연계된 통합형 지원 모델(상담·멘토링·기업연계·대안교육)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재진입과 학업 지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1) Eurostat, Early leavers from education and training (2024)의 내용을 토대로 집필자가 작성함.

다. 프랑스 해외 영토의 특수 상황

과이아나(Guyane)는 남아메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행정적으로는 본토와 동일한 지위를 지니며 프랑스 교육부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조기중단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2025년 Jean-Jaurès 재단 보고서는 과이아나 지역 학생들이 물리적 거리, 교사 부족, 빈곤 문제로 인해 체계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례는 프랑스의 학업 중단 문제가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지역·배경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라. 두 번째 기회 학교 제도

프랑스에는 Écoles de la deuxième chance (E2C, 두 번째 기회 학교)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자격증이 없는 청년들이 다시 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기준 약 146개 기관이 운영되며 16,876명의 청년이 참여하였다. 이 제도는 본래 교육 체계에서 이탈한 학생들에게 사회적 재진입의 경로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안 장치로 평가된다.

3. 정책 효과와 과제

가. 정책의 성과와 남은 과제

프랑스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 차원의 제도화와 지역 단위 플랫폼 운영은 조기중단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실제로 조기중단율은 2010년 11.3%에서 2023년 7.6%로 하락했다. 특히 16~18세 교육·훈련 의무 제도는 청소년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안전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많다. 첫째, 지역 격차가 뚜렷하다.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탈률을 보이고, 해외 영토는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앙정부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둘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하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 이민자 배경은 조기중단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일부 학생들은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는 경험을 학업 중단의 직접적 이유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일간지 La Dépêche는 Cahors 지역에서 학교 제재 경험이 청소년에게 탈락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도하며, 처벌보다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에 따르면 프랑스 15세 학생의 약 25%가 읽기·수학·과학에서 기초 수준 미만의 성취를 보였다. 이는 조기중단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단순히 재학 여부를 넘어 학업의 질까지 함께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재진입 경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직업교육과 재진입 경로를 강화해 왔다. 그중에서도 직업교육·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실제로 2024년 유럽연합 Education and Training Monitor에 따르면 프랑스 청년들의 직업교육 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업 중단자가 노동시장에 곧바로 진입하는 대신 훈련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특히 기업과 연계된 견습(apprentissage) 제도는 실제 고용 기회로 이어져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Écoles de la deuxième chance (E2C, 두 번째 기회 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청년들이 교육 체계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 경로다. 2023년 현재 전국에서 146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약 16,876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초학력 보완과 직업기술 습득, 사회·문화적 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정부는 기업,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해 맞춤형 훈련 경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단순한 학업 성취를 넘어 노동시장과 시민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 사회적·심리적 요인과 지원체계

직업적·제도적 대응과 함께 청소년 개인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La Dépêche는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경험’을 학업 중단의 이유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부는 상담사와 심리치료사 배치를 늘리고,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Fondation de France와 같은 비영리 기관이 멘토링, 포레 관계, 사회적 유대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업 동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지원은 제도적 장치와 결합될 때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 데이터 기반의 조기중단 관리

프랑스는 데이터 기반 접근을 통해 학업 중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D EPP와 INSEE는 매년 연령, 성별, 지역별 세부 통계를 제공하며, 이를 정책 평가와 개선의 근거로 활용한다. PSAD 플랫폼은 무단결석, 성적 저하, 상담 이력 등 학생 개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 체계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한다.

4. 프랑스와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비교

프랑스의 경험은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한국은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와 ‘Wee센터’를 통해 상담·심리치료·직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청소년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구분	한국
법적 의무로 규정(16~18세)	교육·훈련 참여 보장	자발적 참여 기반, 권고적 성격
중앙정부-지역-학교가 연결된 플랫폼(PSAD) 운영	지원 체계 구조	개별 센터 중심, 지역 간 편차 존재
조기중단 문제를 국가 정책에 통합, 장기적 통계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이탈 학생에 대한 추적조사 부족

【표 1】 프랑스와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비교¹⁵⁾

5. 맺음말

프랑스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지역 단위 협력 구조를 정비해 왔으며, 그 결과 조기중단율을 과거보다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매년 수만 명의 청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지역적·사회적 격차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는 학업 조기중단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상담, 심리치료, 직업 연계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와는 제도적 기반과 지역 간 편차 관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나라의 경험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국가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 ▶ education.gouv.fr/la-lutte-contre-le-decrochage-scolaire
- ▶ eduscol.education.fr/4162/des-acteurs-et-des-organisations-mobilises-contre-le-decrochage-scolaire
- ▶ 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Early_leavers_from_education_and_training
- ▶ insee.fr/fr/statistiques/6959357
- ▶ rers.depp.education.fr/data/2024/RERS.pdf
- ▶ op.europa.eu/webpub/eac/education-and-training-monitor/fr/country-reports/france.html

15) 참고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집필자가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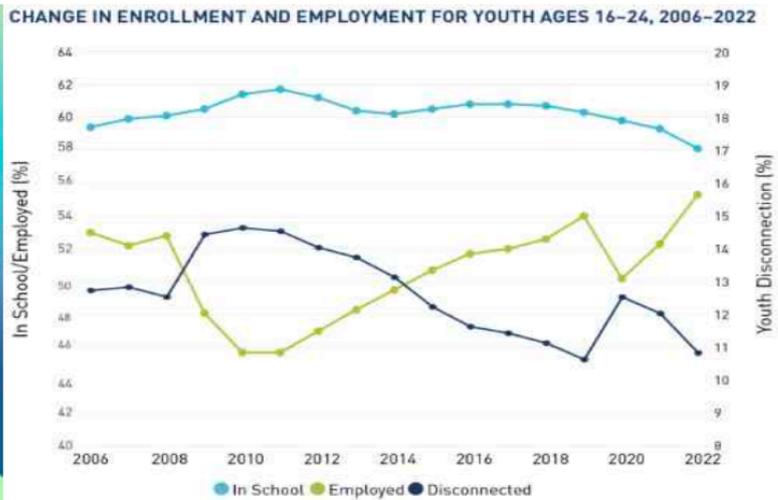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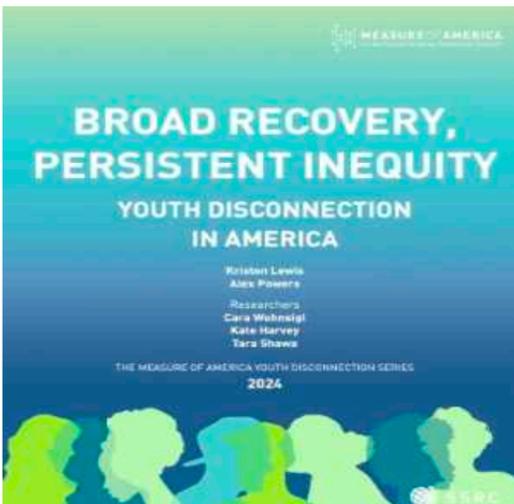


미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간위원 : 이호연 (예천여자고등학교 교사)

1. 역설적인 지표가 보내는 경고, 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인가?

가. 미국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그림 1] 2006-2022년, 미국 16-24세 청년의 재학, 취업 및 사회적 단절(Youth Disconnection) 상태 변화 추이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기관 '메저 오브 아메리카(Measure of America)'가 공개한 최신 그래프는 언뜻 보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 2022년 기준, 학업과 취업을 모두 중단한 '사회적 단절(Disconnected)' 청소년의 비율이 약 10.3%로 지난 16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수치 뒤에 가려진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의 그림자가 드러난다. 바로 '재학생(In School)' 비율의 이례적인 감소이다. 오랫동안 60% 이상을 유지하던 재학생 비율은 2020년 이후 눈에 띄게 하락했다. 이는 평소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학교라는 제도적 울타리를 떠나 사회로 나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학교를 떠난 그 많은 청소년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가파르게 회복 중인 고용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수

가 일자리를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사회적 단절' 청소년 비율은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했어야 타당하다. 그러나 재학생은 줄고 취업자는 늘어나는 동안, '사회적 단절' 비율의 감소 폭은 극히 미미했다. 이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 중 상당수가 일자리로 곧장 연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흡수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단절된 청소년의 절대적인 숫자 때문만이 아니다. 학교 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동시에, 이들을 고용 시장이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연결 고리의 실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저'라는 수치에 안도할 때가 아니라,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청소년들의 규모와 이들이 마주한 구조적 장벽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나. 한국과 다른 미국의 접근 방식: '기회의 청소년'

구분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	미국의 '기회의 청소년(Opportunity Youth)'
핵심 개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학교 시스템을 아예 떠났으며(자퇴 등), 일도 하지 않는 청년
상태	교육 시스템에서의 이탈 - 정규 교육의 부재 상태에 초점	미취학 & 미취업 상태의 '사회적 단절'
정책 초점	어떻게 이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학업학력 취득을 통한 교육 시스템 재진입 및 통합적 지원)	어떻게 이 청년들을 교육 또는 직업의 경로로 다시 연결할 것인가? (사회 진입 지원)

< 표1 >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과 미국의 '기회의 청소년'의 차이점

미국 사회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단순히문제 학생으로 낙인찍는 대신,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청소년(Opportunity Youth)'으로 인식하는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획일적인 복귀 정책에서 벗어나 다각적이고 유연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인력 혁신 및 기회에 관한 법률(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과 같은 연방 법률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주 정부와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본 기사는 미국 각 주가 이 정책적 기반 위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미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3개 주(州) 성공 사례 분석

미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州)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엄격한 규율을 통한 자기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부터, 유연한 학업 시스템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는 모델까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텍사스, 워싱턴,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미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워싱턴(Washington)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픈 도어스 청소년 재참여 프로그램'

워싱턴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유연성'과 '맞춤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주 교육부(OSPI)가 직접 관할하는 '오픈 도어스 청소년 재참여 프로그램(Open Doors Youth Reengagement Program)'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다. 매년 수백 개의 지역 교육청, 커뮤니티 칼리지,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다양한 진로 및 학업 경로를 설계한다.

- 대상: 16~21세의 학업 중단 또는 중단 위기 청소년 - 고등학교 졸업장, GED 취득, 직업 기술 훈련 목표
- 프로그램 특징

① 개인 맞춤형 학습: 다양한 학습 경로 제공

학생들은 지역 교육청, 커뮤니티 칼리지, 비영리 단체 등과 연계된 다양한 기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 정해진 시간표 대신 역량 기반의 학점 이수 방식을 채택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과제를 완료하고 학점을 취득한다.

② 사례 관리자(Case Manager) 제도: 사례 관리 기반의 통합 지원

학생마다 전담 사례 관리자(Case Manager)가 배정되어 학업, 주거, 건강, 취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복합 사회서비스 연계 기반을 바탕으로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③ 현장 연계 교육: 지역사회 파트너십

학교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파트너 기관들은 현장 실습, 인턴십,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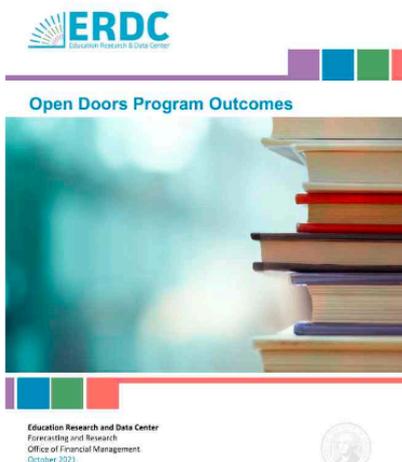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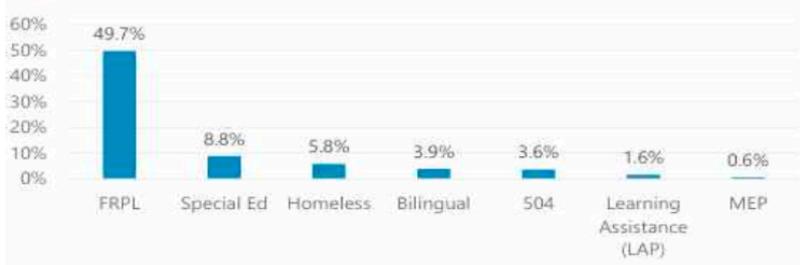


Figure 1b. Participation rates of 2017 Open Doors Cohort across student characteristics



FRPL: 저소득층 학생 Special Ed: 특수교육 대상 학생 Homeless: 노숙 학생
Bilingual: 이중언어 사용 학생 504: 504 플랜 (장애 학생 지원 계획) 대상자
Learning Assistance (LAP): 학습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MEP: 이주 배경 학생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그림 2] 오픈 도어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특성별 분포

나.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공교육 시스템 내 대안적 교육 환경, '계속 교육 고등학교'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가진 캘리포니아주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대안 교육 시스템으로 '계속 교육 고등학교(Continuation Education High School)'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종합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공교육의 한 형태이다. 소규모 학급과 개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림 3] 캘리포니아 스쿨 대시보드를 통한 계속 교육 고등학교 성과 분석 (Central High 사례)

· 설립 목적: 16세 이상의 학생 중, 학점이 부족하거나, 직장 생활 병행,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주요 특징

① 소규모 학급과 개별화된 지도

: 일반 고등학교보다 적은 학생들로 학급이 구성되어, 개개인이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유연한 수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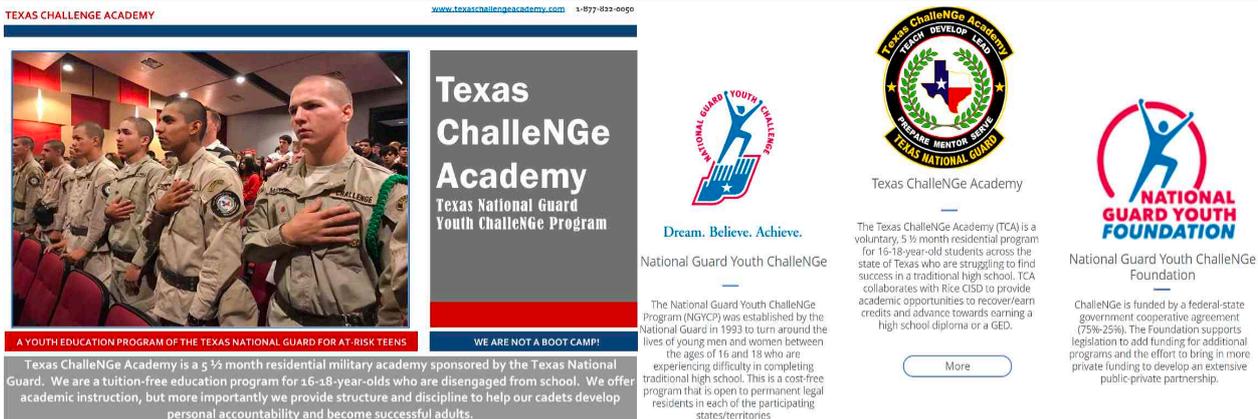
: 학생들은 최소 주 15시간의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녁 수업이나 독립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③ 진로 및 상담 지도 강화

: 학업 지도와 더불어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고, 구체적인 진로 및 직업 상담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의 최신 통계(2024-2025년 기준)에 따르면, 주 전역에 417개의 계속 교육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44,53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관련 학생 및 학교 수는 지역의 경제 상황과 같은 사회적 변수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으나, 전국 최대 규모를 유지하며 위기 학생을 포용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다. 텍사스(Texas)주: 규율과 리더십 함양 '텍사스 챌린지 아카데미'

텍사스주는 주 방위군이 운영하는 독특한 형태의 기숙형 대안 교육 프로그램인 '텍사스 챌린지 아카데미 (Texas ChalleNGe Academy, TCA)'를 통해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학점을 취득시키는 것을 넘어, 준군사적 환경 속에서 규율, 리더십, 책임감을 함양하는 전인적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주방위군 청소년 챌린지 프로그램(US National Guard Youth ChalleNGe Program)의 일부로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따르며, 수많은 주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그림 4] 텍사스 챌린지 아카데미와 전국 유스 챌린지 프로그램(National Guard Youth Challenge)

· 운영 방식: 16세~18세의 자발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약 17.5개월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뉜다.

① 5.5개월의 기숙 단계

: 학생들은 엄격한 규율과 일과 속에서 생활하며, 학업(고등학교 학점 취득 또는 GED 준비), 체력 단련, 생활 기술, 리더십 등 8가지 핵심 요소를 집중적으로 훈련받는다.

② 12개월의 후속 멘토링 단계

: 5.5개월의 기숙 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12개월간 지역사회 멘토와 연결되어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받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자립을 돕는다.

· 교육 및 관리: 새벽 기상과 체력 단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중에는 학점 취득 및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GED) 준비를 위한 학업에 매진한다. 주말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상담사와 생활 지도 교사의 밀착 관리를 통해 인성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한다.

텍사스 챌린지 아카데미는 구조화되고 절제된 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통제력을 기르고, 학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학습 부진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3. 보이지 않는 청소년을 찾아내는 기술: 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및 지원 시스템

미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주 정부와 교육구는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사라지기 전에' 위기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이미 '보이지 않게 된' 청소년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 조기 경보 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s, EWS)의 활용

상당수의 미국 교육구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학업 중단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EWS)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특정 학생의 출석률(Attendance), 행동 문제(Behavior), 교과 성적(Course performance), 이른바 'ABC 지표'를 핵심 변수로 활용한다. 한 학생의 무단결석 일수가 급증하거나, 특정 과목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학교 상담사나 담당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낸다. 이를 통

해 교사와 상담사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학생과 면담하고, 필요한 지원(학습 클리닉, 심리 상담 등)을 즉시 연계하여 학교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개입'이 가능하다.

나. 주(州) 정부 통합 데이터 시스템 (Statewide Integrated Data Systems, IDS) 구축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교육 시스템의 데이터에서 사라져 추적이 어렵다. 이에 대해 많은 주 정부는 교육, 복지, 고용, 사법(소년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시스템(ID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 위기 청소년의 공통 경로 파악
 - : 어떤 배경(아동보호시설 경험, 특정 지역 거주)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지 패턴을 분석하여, 더 정교한 예방 정책을 설계한다.
-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 : '오픈 도어스'나 '챌린지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이나 소득 수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한다.
- 지원 공백 식별
 - : 정부의 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인구 집단을 파악하여, 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4. 맺음말

미국의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길이 모든 학생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텍사스의 구조화된 가숙형 프로그램부터 워싱턴의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지원, 캘리포니아의 공교육 내 대안 학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청소년의 현재 상황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력 취득을 넘어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과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한국 사회 역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책적 상상력을 넓혀줄 수 있다. 기존의 학교 복귀 지원책을 넘어, 지역 교육청과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학습 경로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때, 우리 교육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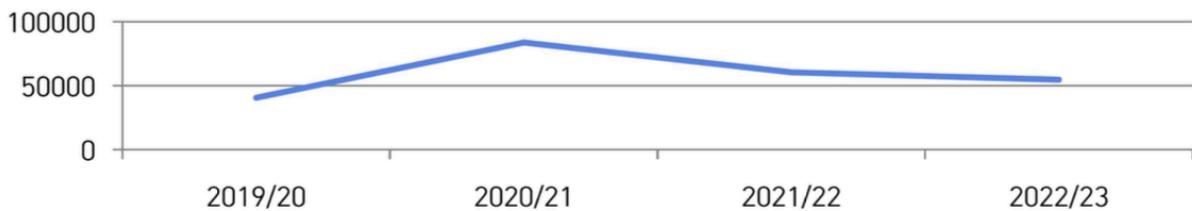
- ▶ Texas Military Department, Texas ChalleNGe Academy (<https://trnd.texas.gov/texas-challenge-academy>)
- ▶ <https://ospi.k12.wa.us/student-success/learning-alternatives/open-doors-youth-reengagement>
- ▶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Continuation Education (<https://www.cde.ca.gov/sp/eo/ce/>)
- ▶ <https://measureofamerica.org/youth-disconnection-2024/>



캐나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간위원 : 안예린(포항송곡초등학교 교사)

팬데믹을 기점으로 캐나다 K-12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 경로의 다변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공교육 체제를 벗어나 가정학습, 원격 학습, 대안교육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가정학습(이하 홈스쿨링) 참여 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에만 83,78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급증한 수치로, 특히 저연령 학년(초등 1~2학년)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표 1] 캐나다 홈스쿨링 참여 학생 수 추이

또한 팬데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의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 기존 교육 시스템은 원주민, 이민자, 저소득 가정 배경의 학생 등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기회와 정서적 지원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수자 계층의 교육 이탈은 잠재적 사회 안정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팬데믹 종식 이후 홈스쿨링 학생은 감소세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지원 정책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캐나다 교육계는 단일한 경로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의 현장 프로그램이 맞물린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학업을 중단했거나 이탈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 경로에 참여하거나 학교 밖에서도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1. 캐나다 주별 홈스쿨링 아동 운영 구조 및 지원

가. 주별 홈스쿨링 운영 구조

홈스쿨링은 캐나다의 모든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운영 방식과 공적 감독 수준은 주마다 다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Policy/Program Memorandum No. 131(PPM 131)」이 근거 규정이 되며 학부모가 교육청에 서면 통지(written notice)를 제출하면 자녀의 정규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교육청은 필요한 자료와 절차 안내를 제공하지만 가정 내 교육의 실행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홈스쿨링 학생의 학습 성취는 학교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PPM 131은 학교의 행정적 지원과 가정의 자율적 교육권을 분리하고 있다.

알버타주는 감독형과 비감독(비공식)형 두 가지 형태의 홈스쿨링 모델을 병행 운영한다. 감독형은 공립학교나 인가 사립학교가 홈스쿨링 교육과정을 다양한 범위에서 감독하고 정기적 평가와 보고를 진행하며, 일부 범위에서는 재정 지원도 제공된다. 반면 비감독형은 학부모가 학습 전(全) 혹은 일부 과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알버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알버타의 홈스쿨링 학생 수는 24,158명으로 캐나다 전국 차원에서도 높은 비율 수준의 참여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주별로 자율성을 부여해 학생의 학습 선택과 책임의 폭을 넓히고 있다.

나. 홈스쿨링 아동을 위한 지원 및 한계

캐나다 대다수의 주에서는 홈스쿨링을 지원하는 온라인 포털과 학부모 가이드를 제공한다. 일례로 BC주는 홈스쿨링 수요가 폭증한 팬데믹 초기부터 Keep Learning 사이트를 개설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아이디어, 온라인 학습 자원을 연령·주체별로 간략히 제공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역시 PPM 131 안에서 교육청의 가정 대상 학습자료 안내와 상담 연결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1] Keep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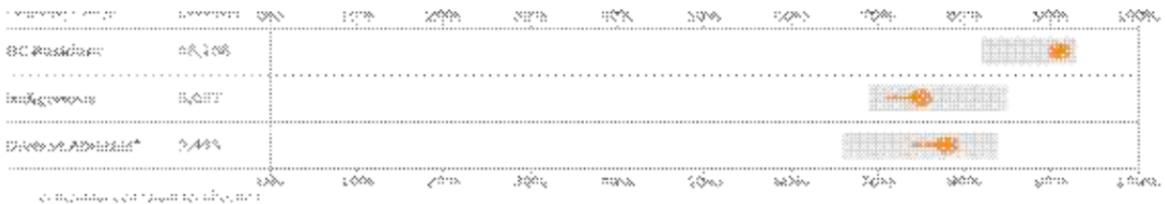
다만 캐나다의 홈스쿨링 지원은 홈스쿨링 참여 학생의 학업 성취를 별도로 추적할 수 있는 전국 차원 지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국제학업평가(PISA)나 국내표집평가(PCAP)는 대부분 정규 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홈스쿨링 참여 학생의 실제 학업 성과는 지역 교육청이나 주 단위 행정 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파악되고 있어 저연령대 홈스쿨링 학생 대상의 전국적 기초학력 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학업 성취뿐 아니라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발달이 중요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도서관 프로그램, 스포츠 클럽, 지역 커뮤니티 클래스 등을 통한 사회성·정서적 발달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2. 캐나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원인

가. 캐나다학교 밖 청소년 실태

캐나다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 약 7-13% 사이로 추정된다. 학업 중단 비율은 취약 계층이 많은 저소득 지역에서는 훨씬 높아져, 과거 일부 보고서에서는 저소득 지역에서의 학업 중단 비율을 30%~50% 수준으로까지 추산하기도 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경우, 2024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과정 이수 통계에서 약 90% 이상의 BC주 학생들이 고등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원주민 학생의 졸업율은 75%, 장애 학생의 졸업률은 78%에 그쳐 전체 평균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 2024년 BC주의 집단별 고등학교 졸업 비율

더불어 팬데믹 이후 중등, 고등 교육과정 학생의 만성 결석(chronic absenteeism) 문제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¹⁶⁾ 캐나다에서 ‘만성 결석’은 한 학년 수업일수의 10% 이상 결석을 뜻하며, 학업 성취와 졸업 가능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OECD가 발표한 PISA 2022 분석에서 캐나다 15세 학생의 약 30%가 “지난 2주 동안 하루 이상 결석/결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OECD 평균(22%)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일수록 결석률이 높았다.

나. 원인

학교 밖 청소년 증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팬데믹 동안 길게 이어진 원격수업과 잦은 휴교는 학생들의 출석 습관과 학습 리듬을 약화시켰다. 일부 청소년은 무너진 일과를 회복하지 못해 결석을 반복했고, 반복된 결석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둘째,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었다. 최근 캐나다 보건정보기관(CIHI)과 여러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불안·우울 관련 상담과 의료 이용이 팬데믹 이후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정서적 어려움은 수업 참여 의지를 떨어뜨리고, 출석 유지와 학업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셋째, 경제적·가사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일부 청소년은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형제자매 및 노인 돌봄 등 가족 내 역할을 떠맡으며 학교와 멀어지곤 한다. 특히 이민자나 소수자 배경의 학생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16) The Current State of School Attendance Research and Data in Canada, Jess Whitley 외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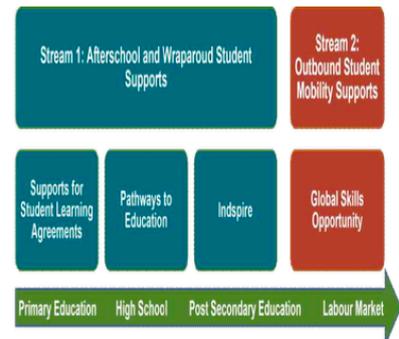
3. 캐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가. 주 차원의 지원

캐나다에서는 학교를 떠나거나 이탈 위험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주 차원에서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C주에서는 일찍부터 Alternate Education(대안 교육) 정책을 통해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고등학생에게 맞춤형 수업과 상담, 사회·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알버타주의 Outreach Program(원조 프로그램)은 학교 환경이 맞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소규모 수업, 온라인 학습 등을 지원하며 학생이 다시 정규 과정으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온타리오 주도 팬데믹 이후 Learning Recovery Action Plan(학습 회복 계획)을 마련해 개인 학습·여름 방학 보충 학습·기초학력 보강수업을 확대하며 출석률과 학업 지속성을 높였다.

나. 연방 차원의 지원

캐나다 연방정부의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운영하는 “Supports for Student Learning Program(SSLP)”은 학교 밖 또는 학업 중단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멘토링, 과외, 방과 후 프로그램 더 나아가 국내외 학습·훈련 기회를 제공 및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학교 내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후 고용·대학 교육으로 편입되어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다.



[그림 3] SSLP 구조

다. 지역사회 및 비영리단체 차원의 지원



[그림 4] BGC Canada

캐나다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비영리단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BGC Canada는 전국 600여 거점에서 15만 명 이상의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 학습 지원, 정서 프로그램, 청소년 고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United for Literacy는 숙제 클럽과 1:1 튜터링을 운영하며, 특히 북부나 농촌과 같은 오지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운영한다. Inspire - Rivers to Success은 원주민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 및 진로 실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사회·정서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그림 5] United for Literacy

캐나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대안교육 및 원조,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의 현장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하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협력 모델은 학생들의 학업 복귀와 학교 밖에서의 교육 및 기술 습득을 돕는 사회적 교육 안전망을 형성한다.

4. 캐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팬데믹 이후 캐나다 전역에서 고등학교 중퇴율이 상승하자, 각 지방 교육청은 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재참여(Re-engagement)와 복귀(School Return)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기존의 출석 관리나 이탈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넘어 학교를 떠난 학생의 개별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성인 및 미취학 청소년 대상 고등학교 학점 이수 프로그램, 고교-대학 연계 학점제(Dual Credit), 온라인 학습 등을 결합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단절된 학업과 사회 연결망을 회복시키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학습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단에서는 온타리오주 지역 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토론토교육청

토론토교육청(TDSB)은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Re-engagement Strategy(재참여 전략)를 운영해 중퇴 청소년이 학업을 재개하고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 과정 중퇴 학생은 Re-Engagement Strategy Hub를 통해 온라인 수업, 야간·여름학교, 고교-대학 연계 학점제(Dual Credit, 지역 대학의 특성 수업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및 대학 학점을 동시에 취득하는 제도)을 선택해 학점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나. 더럼 가톨릭 교육청

더럼 가톨릭 교육청(DCDSB)도 18-21세 청소년 대상의 재참여 프로그램을 Father Donald Mac Lellan Catholic Secondary School 대안학교에서 거점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다시 학업 경로에 복귀하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에는 소규모 및 지지적 교실 환경,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춘 개별 학습 계획, 현장 실습기회, 일부 혹은 전일 학습 선택권, 온라인 수업 제공, 그리고 정서 및 생활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졸업 후 고등교육 또는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지도도 병행된다.

다. 워털루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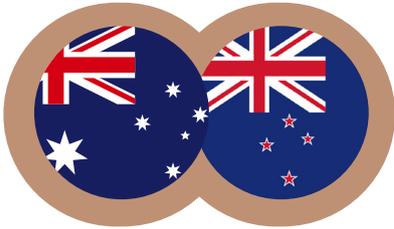
워털루 지역 교육청(WRDSB)은 고등학교 중퇴 혹은 중퇴 위기 학생들을 위한 재참여: Pathways to Succ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점 회복, PLAR(학교 밖 직업 훈련, 봉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 여러 경로를 조합해 졸업 요건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SWAC(School Within a College) 과정은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이 대학 캠퍼스의 대체 교실에서 고교 졸업을 위한 필수·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맺음말

캐나다의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더욱 두드러졌지만, 학습 경로의 다변화와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홈스쿨링, 대안교육, 재참여 프로그램, 지역 사회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들이 학생들의 학업 복귀와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런 지원은 특히 취약 집단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과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캐나다 교육계의 학업 지속 지원 노력은 단순한 학업 성취 보조를 넘어 청소년의 진로 설계 및 사회 편입을 원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참고 자료】

- ▶ <https://www150.statcan.gc.ca/t1/tbl1/en/tv.action?pid=3710017901&utm>
- ▶ <https://www.abmcollege.com/blog/national-dropout-prevention-month-2024-addressing-the-challenge-in-canada>
- ▶ <https://www.unifor.org/node/7911>
- ▶ <https://www.ontario.ca/document/education-ontario-policy-and-program-direction/policyprogram-memorandum-131>
- ▶ <https://www.alberta.ca/student-population-statistics>
- ▶ <https://www.app.edu.gov.on.ca/eng/bpr/allBoards.asp?chosenIndicator>
- ▶ <https://studentsuccess.gov.bc.ca/school-district/099/report/completion-rates>
- ▶ <https://www.cihi.ca/en/child-and-youth-mental-health/overall-trends-for-child-and-youth-mental-health>
- ▶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087549>
- ▶ <https://www2.gov.bc.ca/gov/content/education-training/k-12/administration/legislation-policy/public-schools/alternate-education-program>
- ▶ <https://www.alberta.ca/outreach-programs>
- ▶ <https://news.ontario.ca/en/backgrounder/1001622/ontarios-learning-recovery-action-plan-for-students>
- ▶ <https://www.bgccan.com/en/>
- ▶ <https://www.unitedforliteracy.ca/Programs>
- ▶ <https://www.unitedforliteracy.ca/Programs>
- ▶ <https://www.tdsb.on.ca/High-School/Going-to-High-School/Other-Learning-Opportunities>
- ▶ <https://fatherdonmaclellan.dcdsb.ca/en/programs-and-services/re-engagement-program-18-21-.aspx>
- ▶ <https://schools.wrdsb.ca/pathways/category/re-engagement>



호주와 뉴질랜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간위원 : 최지원(상대초등학교 교사)

청소년들의 학교 이탈 문제는 그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이는 빈곤, 사회적 소외,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기관, 학교, 지역사회, 비정부 기관(NGO)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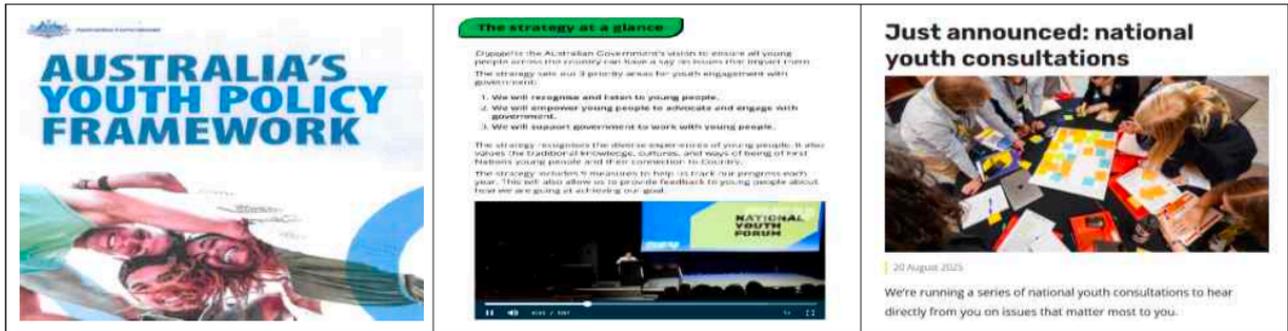
1. 호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호주는 연방 정부와 주/준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와 비정부 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의 학업 복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다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가. 연방 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

호주 연방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재정적 지원 및 범국가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호주 교육부에서는 ‘호주 청소년 정책 체제(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이하 AYPF)’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주요 전환기(학교에서 성인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AYPF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교육, 고

용, 사회 참여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Engage! 전략’은 청소년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립 청소년 포럼(National Youth Forum)과 같이 전국 각지의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를 실시하거나, 교육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에 청소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관점을 반영하는 등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림 1] 호주 청소년 정책 체제(좌), Engage! 전략 소개(중), 국립 청소년 포럼 장면(우)

그 외에도 호주 사회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서는 학업을 중단하고 구직 중이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호주 각 주의 청소년 사법부(Youth Justice)는 비행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 교육, 상담,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교육부 및 사회 서비스부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법률적 문제와 교육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협력적 접근을 보여준다.

나. 주/준주 정부와 학교 수준의 정책

호주의 교육 시스템은 주/준주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학교 이탈 방지 및 지원 정책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된다. 퀸즐랜드주 교육부와 같은 주 정부 기관은 주류 학교 시스템에 부적응하거나 이탈한 청소년들을 위해 대안 교육(Alternative Settings) 환경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보통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며,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와 흥미에 맞춰 학업, 사회성 개발, 직업 기술 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학생이 다시 교육 시스템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또한 각 주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의 잦은 결석, 낮은 학업 성취도 등 이탈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일례로, ‘Everybody’s Business’는 학교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탈 위험이 있는 학생을 식별하고,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위치	대상	대안 교육 프로그램 제공 단체
Ipswich	10~16세	ICYS Ipswich Community Youth Service
Mount Isa	10~16세	54 Reasons partnering with Ohana for Youth
Cairns	10~16세	Deadly Inspiring Youth Doing Good
Townsville	10~13세	Community Gro
	14~16세	Queensland Youth Services

<표 1> 호주 대안 교육 프로그램 제공 현황¹⁷⁾

다. 비정부 기관(NGO) 및 지역사회 협력

한편, 호주의 청소년 지원 정책은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비정부 기관(NGO)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호주의 대표적인 NGO인 미션 오스트레일리아는 청소년에게 주거, 정신 건강, 약물/알코올 상담, 그리고 교육 및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한다. 또한 호주의 다문화 청소년 옹호 네트워크(MYAN)는 난민 및 이민자 출신 청소년의 정착을 돕는 ‘국가 청소년 정착 체제(National Youth Settlement Framework)’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는 교육, 보건,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호주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도록 돕는 지침을 제공하며, 정부 기관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정책의 현장 적용을 강화한다.



[그림 2] 미션 오스트레일리아가 개소한 ‘청소년 주택’¹⁸⁾

17) 청소년 사법 제도에 연루된 아동을 위한 전문 대안 학습 프로그램은 케언즈, 타운즈빌, 마운트 아이자, Ipswich 지역의 비정부기구와의 자금 지원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되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택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 교육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습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https://education.qld.gov.au/students/student-engagement/supporting-student-engagement>).

18) <https://www.missionaustralia.com.au/media-centre/media-releases/mission-australia-opens-new-youth-housing-danden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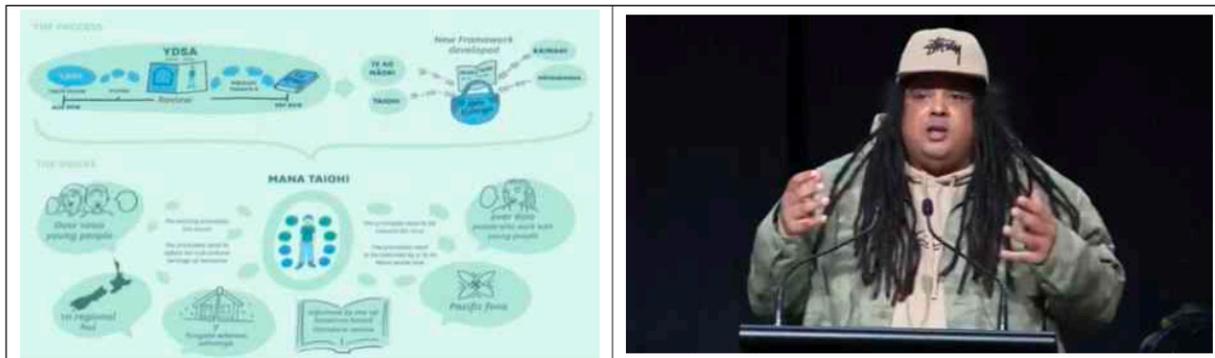
2. 뉴질랜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뉴질랜드의 청소년 지원 정책은 마오리족의 문화적 가치인 '마나 타이오히(Mana Taiohi)'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철학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역량을 존중하며,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뉴질랜드는 정부 기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특히 마오리족 공동체(iwi) 간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이 철학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을 지원한다.

가.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시스템

뉴질랜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선 통합적 접근을 지향한다. 뉴질랜드 정부, 특히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공동 청소년 계획(Youth Plan)'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복지를 증진하도록 독려한다. 이 계획은 마오리 청소년(Rangatahi Māori)과 태평양 섬 출신 청소년, 장애 청소년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한다. 정부는 비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제공자(providers)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이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정부 산하에 위기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오랑가 타마리키(Oranga Tamariki)'를 두고 있는데, 이 기관은 경찰, 교육부, 보건부 등과 협력하여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조기에 식별하고, 학대, 방임, 비행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교육 이탈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을 수행한다.



[그림 3] 마나 타이오히 청소년 개발 모델(좌), 명사 특강(우)¹⁹⁾

19) 마나 타이오히(Mana Taiohi)는 아오테아로아 청소년 개발 전략(2002)에 명시된 청소년 개발 원칙으로 부터 발전한 모델이며,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업무 방식을 알려준다.

나. 학교 및 교육 시스템의 역할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은 학교가 학생의 이탈을 예방하고, 이미 이탈한 학생을 재교육 시스템으로 이끌도록 설계되어 있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13~15세 사이의 학교 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는 주류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다른’ 안전하고 매력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다시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학교는 ‘학교 이탈 방지 시스템’을 통해 출석률, 행동 문제, 학업 성취도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이탈 위험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식별하고, 상담, 학습 지원, 그리고 외부 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한다.

다. 고등 교육 및 직업 훈련

뉴질랜드는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직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기술 교육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고등교육위원회(Tertiary Education Commission)는 16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 훈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보장 프로그램(Youth Guarantee)’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학력 자격이 없는 청소년들이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 등 국가 인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는다. 자동차 정비, 건설, 미용,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쳐 청소년들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4] 청소년 보장 프로그램 6개 영역(좌), 청소년 대상 제공 실용 교육 장면(우)

3. 호주와 뉴질랜드 정책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호주와 뉴질랜드의 학교 이탈 청소년 지원 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공통점은 세 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두 국가 모두 다양한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청소년 문제를 해결

하려는 통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둘째,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재교육 경로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두 국가의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뉴질랜드는 호주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문화적 기반을 더 깊이 반영하여 전반적으로는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문화적 정체성 존중을 강조하면서, 마오리족의 ‘마나 타이오히’ 철학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 마오리 청소년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둘째, 호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교육, 고용, 훈련(EET)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의 청소년 보장 프로그램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고등교육 시스템(Tertiary Education)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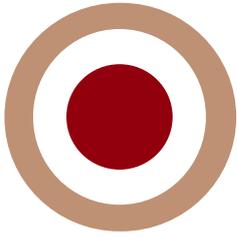
4. 결론

호주와 뉴질랜드의 학교 이탈 청소년 지원 정책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개별 기관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의 복잡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청소년 지원 시스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NGO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는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참고 자료】

- ▶ Australian Government of Education(2021). “Australia’s Youth Policy Framework”
- ▶ Office for Youth, <https://www.youth.gov.au/>
- ▶ Education Queensland(2013). “Everybody’s Business”
- ▶ Education Queensland, <https://education.qld.gov.au/>
- ▶ New Zealand Government, “The Child and Youth Strategy 2024–2027 Version for young Kiwis”
- ▶ Ara Taiohi, <https://arataiohi.org.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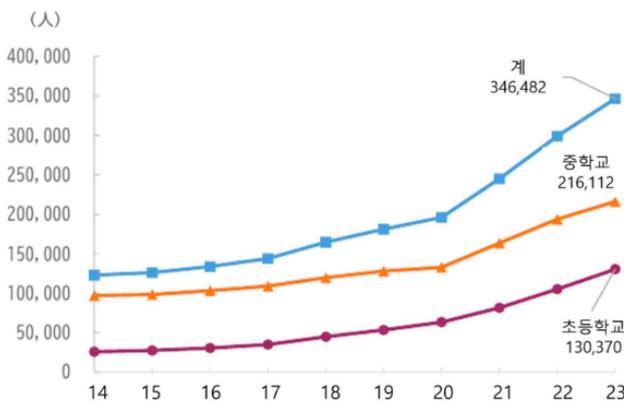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발간위원 : 최광현(복주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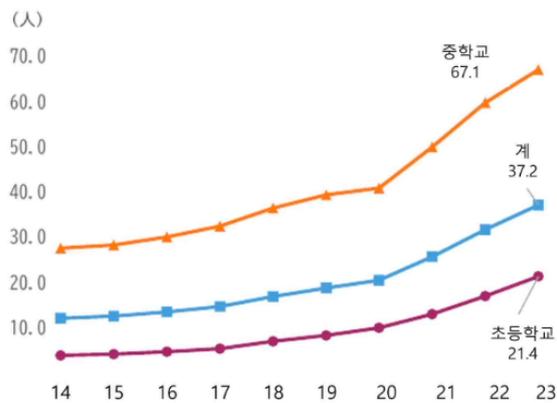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024년 10월 문부과학성은 ‘2023년도 학생 문제행동·등교거부 등 학생 지도상의 제반 과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일본 학생들의 폭력행위, 괴롭힘(이지메), 출석정지, 자살 등의 다양한 문제 상황 및 실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일본 사회의 문제점으로 손꼽히는 초·중·고등학교의 장기결석(부등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등교 학생 수 추이



부등교 학생 수 추이 (1천명 당 부등교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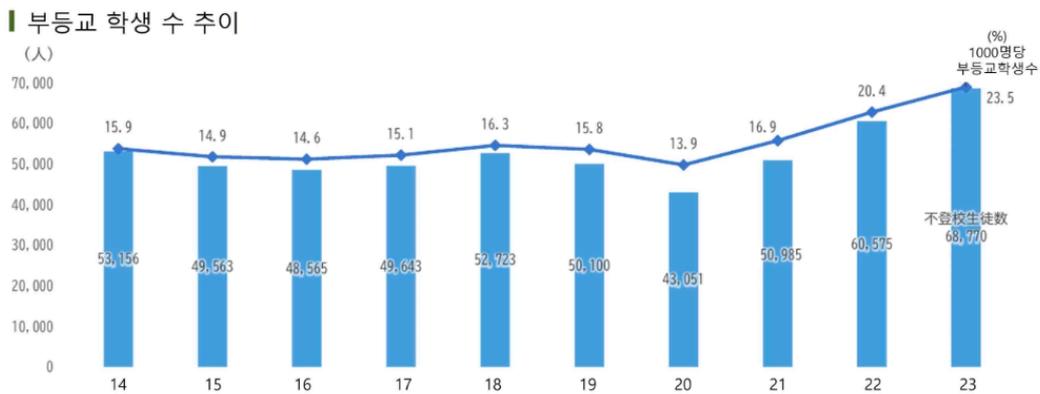


[그림 1] 초·중학교 부등교 학생 수 추이 (출처: 문부과학성)

[그림 1]에서 보듯이 2023년도 일본의 초·중학교 부등교²⁰⁾ 학생 수는 346,482명으로 전체 재학

생의 3.7%를 차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학교급별 부등교 학생 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초등학교 부등교 학생은 130,370명, 중학교 부등교 학생은 216,112명으로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의 부등교 현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등교 학생의 절반 이상(55.0%)은 90일 이상 장기결석 상태에 있어 학교와의 연결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임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부등교 학생 수는 11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일본 교육의 심각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2] 고등학교 부등교 학생 수 추이 (출처: 문부과학성)

고등학교에서의 부등교 및 장기결석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고등학교 부등교 학생은 68,770명으로 전체 재학생 대비 2.4%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약 13.5% 증가하여 고등학생의 부등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의 부등교 사유로는 ‘학교생활 의욕 상실’(32.8%), ‘생활 리듬 불안정’(26.7%), ‘불안·우울’(16.7%)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어, 정신적·정서적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학업부진	학교생활 학업부적응	진로변경	질병·부상·사망	경제적자유	가정사정	문제행동 등	기타
2021	2,560 6.6%	11,855 30.5%	17,219 44.2%	1,919 4.9%	532 1.4%	1,478 3.8%	954 2.5%	2,411 6.2%
2022	2,600 6.0%	14,253 32.8%	19,055 43.9%	2,107 4.9%	617 1.4%	1,424 3.3%	1,196 2.8%	2,149 5.0%
2023	3,124 6.8%	15,804 34.2%	19,087 41.3%	1,971 4.3%	567 1.2%	1,333 2.9%	1,527 3.3%	2,825 6.1%

[그림 3] 사유별 중도퇴학자 수 (출처: 문부과학성)

2023년도 고등학교 중도퇴학자 수는 전체의 1.5%로 총 46,238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의 퇴학 사유를 살펴보면 ‘진로 변경’(41.3%)이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한 부적응’(34.2%)이 그 뒤를 이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가. 교육 기회 확보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등교 학생의 실태를 배려하여 특별히 편성된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정비 및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교육의 충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육 기회 확보법 제10조

일본에서는 2016년 ‘의무교육 단계의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 기회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 기회 확보법)을 제정해 부등교 학생 등 의무 교육 단계의 보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부등교 학생에 대한 정의 또한 교육 기회 확보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로써 부등교 학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에게 제공되는 대안교육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게 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요인이나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일본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원활한 사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모든 아동과 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등교 거부, 니트(NEET),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등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아동·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담, 진로 지도,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있더라도 ‘아동·청년 지원 지역협의회’나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은 교육적 지원뿐 아니라 복지·보건·고용과의 연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부등교로 장기간 학교와 단절된 청소년이라도 진로 상담이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역의 전문 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법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청년 종합상담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자립을 위한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다. 대안교육

일본의 대안교육은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교과 및 교육과정이 규정된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교육법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교육 기회 확보법의 제정으로 인해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학교 밖 교육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재적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대안학교 통학 시에도 재적 학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1) 자유 학교(프리스쿨)

일본에서는 부등교 학생에게 학습, 상담, 체험 활동 등을 제공하는 민간 사립 교육 기관인 ‘자유 학교’가 있다.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자유 학교는 약 47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기관은 민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유 학교에 다니는 초·중학생이 자유 학교에서의 출석을 재적 학교의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출석 취급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등교 학생이 재적 학교에 복귀하기 전까지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부등교 학생의 학습 권리를 보호하고 유연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로 이러한 자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시 재적 학교로 복귀하거나 정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전문학교 등으로 편입을 할 수 있으며 통신학교나 시간제 학교로 진학하는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 현재 일본 대안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2) 부등교 특례교

일본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습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부등교 학생에게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배움 다양화 학교’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예술, 음악, 스포츠, IT 기술 등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참고로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부등교 특례교는 2024년 현재 일본 전국에서 공립 및 사립학교를 포함해 총 35개교가 운영 중인데, 이는 부등교 학생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3) 적응 지도 교실

적응 지도 교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설로, 부등교 학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학교 복귀를 돕는 대안교육의 한 형태이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자유 학교와는 달리, 적응 지도 교실은 정해진 프로그램과 일정을 운영하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적응 지도 교실에서 학생들은 주로 스스로 학습하며 필요에 따라 지도 교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적응 지도 교실은 부등교 학생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가상학교 / 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에서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가상학교(バーチャル学校)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가상학교는 학교 및 자유 학교 등에 계속적으로 다니지 않거나 질병 등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가상학교 참가 모집에서는 150명의 정원 대비 2배 이상의 응모가 이루어졌는데 얼굴을 보일 필요가 없고, 1인 1단말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리적·정신적 부담이 적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학생들은 아바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재로 학습이 가능했다. 특히 참가 학생 간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비밀 대화도 가능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자유 학교(프리스쿨) / '기린의 문' 학교



자유 학교 '기린의 문'은 이즈미사노 시에서 처음 개교한 자유 학교이며 NPO 법인이 운영한다. 이즈미사노시로부터 보조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보호자는 월 3만 3천엔(지방자치단체별 차이 있음)의 이용료를 지불한다. 주 5일 운영하지만 학생들이 반드시 매일 등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교육과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생들은 자유 학교에 등교한 후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해 참여한다.

부등교 특례교 / 가마쿠라 시립 유이가하마 중학교



2025년 4월 개교한 가마쿠라 시립 유이가하마 중학교는 연간 수업 시간을 줄이고, 교가나 학교 행사를 없애는 등 부등교 학생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교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에 적응하게 되었다.

4. 맺음말

일본의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적응 문제를 넘어, 사회적,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부등교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전통적인 획일적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일본 문부과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기회 확보법’ 제정 및 각종 교육 정책의 실행을 통해 ‘학교 복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자유 학교 등 학교 외 교육 기관 이용에 따르는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지역별 지원 인프라의 격차 또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홈스쿨링 등 대안적 교육 방식에 대한 법적 인정 부족은 여전히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확대, 지역 인프라 균등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content/20241031-mxt_jidou02-100002753_2_2.pdf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1387008.htm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1302905.htm
- ▶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march_lion/torikumi_futoukou.htm
- ▶ こども家庭庁, <https://www.cfa.go.jp/policies/youth/kyougikai-soudancenter>
- ▶ 칸텔레NEWS, <https://youtu.be/QTgXQSPNu4Y?t=1>
- ▶ 日テレNEWS, <https://youtu.be/4UmL4F8YIHI?t=2>
- ▶ 静岡朝日テレビニュース, <https://www.youtube.com/watch?v=I37PGt2TiFY>
- ▶ Youth Guarantee, <https://youthguarantee.education.govt.nz/>